

朝鮮朝 大河小說 研究

—「華山仙界錄」을 中心으로

金 鎮 世*

1. 序 言

「華山仙界錄」은 80 권 80 책의 龍大한 作品이다. 이 作品은 原傳인 「泉水石」에서 連作되었고, 또 이 작품과 連結되는 作品으로 「殘唐演義」와 「南宋演義」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나타나게 되는 이른 바 連作小說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作品이라 하겠다.

이 作業을 통해서 筆者는 첫째, 이 作品의 創作年代를 推定해 보고, 둘째, 男主人公인 위현, 그리고 女主人公인 위현의 三婦人을 살피 다음 끝으로 양희숙의 孝心을 살피 볼까 한다.

이러한 몇 가지를 통해서 筆者는 조선조 후기 사회인들이 그리던 「仙界」의 性格과 그 意味를 생각해 보려 한다.

2. 創作年代 推定

朝鮮朝의 古典小說이 대부분 그 創作年代를 밝히고 있지 않듯이 이 「華山仙界錄」도 그 創作年代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지음에 紹介된 洪巖福의 「第一奇譚」과 關聯지어 생각한다면 이 作品의 創作年代가 좀더 壓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洪巖福은 中國 淸나라의 李汝珍이 지은 「鏡花緣」을 번역하여 「第一奇譚」이란 이름으로 世上에 남기고 있다. 그는 1794 년인 正祖 18년에 태

*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나서 1859 년인 哲宗 10 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가 그 번역작업을 시작한 것이 1835 년이고 그 작업을 끝낸 것이 1848 년이다. 그런데 그 「第一奇諺」의 序文에는 당시 독자들에게 읽히던 소설을 中國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그것에 소개된 우리의 소설로는 「劉氏三代錄」「關虛談」「玩月會盟」「明珠報月聘」 그리고 「華山仙潔錄」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現在 傳해지고 있는 작품들인데 그 題目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다.

〈第一奇諺〉	〈現 在〉
劉氏三代錄	劉氏三代錄
關 虛 談	碧虛談關帝言錄
玩月會盟	玩月會盟宴
明珠報月聘	明珠寶月聘
華山仙潔錄	華山仙界錄

이처럼 작품의 題目을 줄였거나 아니면 한 두 字씩 다르게 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萬一 이러한 것이 許容이 된다면 이 「華山仙界錄」은 적어도 1848 년인 憲宗 14 년 이전에 벌써 世間에서 읽히고 있었던 것이니 그 창작 年代는 이보다 얼마간 앞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작품을 「玩月會盟宴」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 싶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도서관 소장본인 「玩月會盟宴」에는 이 작품의 창작년대나 필사년대에 대해 정보를 얻을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그 필사년대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奎章閣本 「玩月會盟宴」은 辛丑年 겨울에서 다음 해인 壬寅年 봄 사이에 轉寫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辛丑과 壬寅이 어느 때의 辛丑이고 壬寅이냐의 問題는 그대로 남는다.

辛丑과 壬寅을 추적해 보면 1901 년과 1902 년, 1841 년과 1842 년, 1781 년과 1782 년, 1721 년과 1722 년이 그 週期임을 알 수가 있다. 이 週期를 우리의 古典小說 發達過程과 연관시켜 볼 때 우선 景宗代인 1721 년과 1722 年에, 이 「玩月會盟宴」과 같은 龍大하면서도 잘 짜여진 작품

이 創作되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그 紙質이나 表記法 등 여러 모로 보아 이것이 1901年과 1902年인 高宗代의 것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辛丑과 壬寅은 1780年代인 正祖 때가 아니면 1840年代인 憲宗 때의 것으로 壓縮이 될 수 있다.

이 때 늦잡아서 이 辛丑과 壬寅을 憲宗代인 1841年과 1842年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玩月會盟宴」은 「第一奇諺」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벌써 轉寫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華山仙界錄」도 「玩月會盟宴」과 거의 같은 시기의 創作物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第一奇諺」에 소개된 「玩月會盟宴」 「碧虛談關帝言錄」 「明珠寶月聘」 등 작품들은 正祖 純祖代에 創作된 작품들이다”라고.

3. 위 현

이 작품의 男主人公으로 위현이 등장한다. 이 작품의 卷二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있서 텨히 흥흥하여 결안이 크게 작난하고 진한이 망하게 되미 쥬 텨지 님국 하니 도공즈 광운 [등이 쥬 텨즈를 붓드러 텨호를 정호미 님국스연은 잔당연의 에 기록하고 위공의 본스적은 본던 텨슈석의 히비이 기록호 고로 츠던의는 위 현의 스적만 기록하고 다른 스연은 번다 불거호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華山仙界錄」이라는 작품이 위현의 事蹟을 주로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위현은 서정공 복성과 설씨의 晩得子이다. 그러나 그는 만형 경과 중형 회에게 지나는 바가 있었다.

부인이 만년의 잉터하여 싱즈하니 미외 강산의 몹은 정괴물 타나 응위 속미 하여 낭형외서 더으니 부외 귀중하여 반드시 귀인이 될 줄 알고 당상보옥주더라 (권 1).

그는 6세 때

남이 상호봉시로 스방의 오유하여 출당입상하여 치군요순홀지니 엇지 피로
이 양싱슈도하여 초목과 갖치 석으리오 (권 1).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진처사가

황구유지 무슨 말을 하는노 네 조취 대당 명군이로디 네 부친이 턴주의 위
를 현신갓치 바리니 이는 난세의 노기를 그릇하고 엇지 망녕되이 부귀를 니르
는다 이 노기를 도덕지문의 두지 못하리라 (권 1).

하고 꾸짖자 현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월영즉 휴하고 비즉 틈하노니 당도 몇터를 니었노는 턴운이 순환 류류금난
하니 오리지 아나 경홀지라 쇼지 엇지 쓰일 곳이 업스리었고 당침볼스하여 턴
늑이 중호기는 선성이 나오시고 현양부모하고 조손영효호문 쇼지 선싱도곤 나
올가 하노이다 (권 1).

위현은 진처사에 師事하여 天文地理와 六韜三略을 貫通하여 齊世安民
하는 力量을 길렀고 風雲雷雨를 부리는 術法을 익혔다. 그는 趙匡胤의
권유로 이소저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유소저, 정소저와
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들 三小姐와 同日 同時에 결혼했다.

그가 처음 세상에 나가게 된 것은 趙匡胤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다.
왕정빈 등이 北奴를 征伐하다가 失敗하자 皇帝는 그 임무를 조광운에게
맡겼다. 이때 조광운은 위현을 參謀使로 起用할 것을 奏請했고 곧 允許
를 얻었다. 出發에 앞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싱이 부모를 원벌하고 가함을 떠나 세상의 노오미 사업을 세워 심민을 슈화
중의 건질 진주를 만나 공명을 죽비의 세우려 하미니 조고만 니벌을 한하리오
당부의 경눈홀 당신이 노너즈의 당하의 늑늑호 선비 되리오 (권 10).

그는 新婚의 情을 아랑곳 하지 않고 떠났다. 이 광경을 본 조광운은

주현(위현)이 연소 신경으로 경국식의 삼척을 두고 전당 니합이, 지속이 업스니 진짓 디당께요 삼위 가인이 또한 현철하여 아너조의 정부를 늦길 뜻이 업서 배피 지극하니 주현의 가정이 진짓 낭홍자결의 계기라 현소를 군등의 어더 두어시니, 성상의 근심이 업술 것이오 너의 우익이 책하니 너의 무리 저 쇼년을 격게 보지 말나 (권 10).

하면서 滿足해 할 정도였다.

위현은 出征하여 神秘妙計로 敵을 무찌르고 大捷하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皇帝는 그를 吏部侍郎 文淵閣 太學士에 임명하고 계속 京師에 머무도록 했다. 그의 이터함을 보게 된 公主 숙정은 太后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례를 일즉 여희옵고 모후들 외션 산촌야점의 으시로부터 뉴락하여 이제 궁중의 깃드리나 간고 험인을 7초 보아 부귀하니 배스 왕희와 다른지라 눈으로 용스 밍당과 영웅 호걸을 본 비 적지 아닌지라 뜻을 허하며 마음이 취하는 비 번연이 업더니 으히 일뻔된 쇼전이 잇시니 격벽 주량이 잇지 인지 아니리오마는 녀냥을 늦비 녀이고 녹출기제하던 진쟁이 인지 아니리오마는 얼골이 더럽고 힘실이 부결하고 읍귀청스하던 니키이 인물이 허랑하니 천고의 완전한 직 업는지라 금세의 잇지 맞스미 쉬오리오 병심 시름하더니 하늘이 쇼년의 원가를 보너여 목전의 맞스미 잇스니 이 스품은 두목의 풍칙와 청년의 문장과 조방의 지혜와 판증 지도와 공명의 도혹이 잇스니 진짓 옥얼골의 경눈홀 그릇시요 건곤을 스미의 너코 유악외셔 천니의 일을 결하여 나면 당슈 되고 들면 왕시 되여 청풍고결이 만디의 호르는 영웅이니 쇼배 이 스품을 보미 뜻을 입의 허하였스니 낭낭은 쇼녀의 평심 원을 허호쇼셔 (권 10).

숙정공주와의 婚事問題로 그가 華山에 갔을 때였다. 그곳 刺史의 下吏 가운데 身長이 巍巍하고 相貌 兪호한 者를 發見했다. 그리고 그 根本을 물었다.

쇼격은 후진 격 절도스 신경의 으들이니 걸안이 느라할 범하미 아비 흥분을 니끼지 못하여 막조르다가 던망하니 그셔 쇼격이 구세라 게오 아비 시신을 츄조 못고 어미를 닳그려 숨어시나 귀으물 니끼지 못하여 몸을 파라 판니의 동이 되었스이다 (권 12).

이 말을 들은 위현은

그대 괴물이 장성하지는 않겠지 님신 성공하여 문호를 흥치 못하고 천역의 골
물거리오 그대 일흔과 나흘 알고즈 하노라 (권 12).

한 뒤에

너 비록 어지지 못하나 그대를 발견하리니 어이 고집하노는 주인의 은은 언
마나 바드노 (권 12).

하고는 은주 비냥을 주어 그 매인몸을 풀도록 했다.

이물 갖다가 주인을 유교 명일 모친을 피쳐 오라 너 편토록 머므르시게 하
고 그대는 날과 합귀 경수의 가 공명을 취하미 었더하노 (권 12).

위현은 신성을 曠良한 뒤 전처사에게 보내어 劍術을 배우도록 했다.
그후 신앙은 위상서를 돕는 오른팔이 되었다.

그가 신앙을 데리고 화주지계를 지나 섬서로 향하던 때였다. 마송이
판 者에게 펄박을 당하는 화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 평생 덕막이 없고 일기 유심으로 육조의 손이 죽을 줄 알니요 마송? 네
빅일지하의 스름을 죽이고 규슈를 겁탈코즈 하나 너의 쇼미 육을 밧지 아니코
죽으리니 너 죽어 모진 귀신이 되어 너를 삼키리라 (권 13).

화진은 沒落한 선비였다. 그에게는 妻가 있었고 아름다운 누이가 있
었다. 이것을 안 동평지부 마송의 아들인 송이 반계폭경으로 그녀를 탈
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현이 救하게 된 것이다. 이때 화진은 그 은혜를
몹시 고마워했다.

쇼심 화진이 최악이 관영호와 일족 쌍망부모하고 동선형데호와 혼지 쇼미로
강취코즈 하오니 불승분회호와 허치 아녜더니 간계의 속? 간권을 보전치 못
하옵더니 삼공 덕은으로 일신을 보전하니 세세심심의 은혜를 난망이로소이다
(권 13)

이때 위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우의 급화 구호는 인정의 예스여늘 엇지 일컫라 너의 붓그리오물 더으노 호심이 혜진디 그디 옛집의 도라가면 마옹이 그만 호지 아니리니 잠간 니 향호여 병을 도리호고 공명을 일워 님신힌 후 고퇴을 츠즈 계가호라 (권 13).

너 말이 디체돌 의논호고 밋쳐 목절을 스못지 못호미라 너 어지지 못호나 스통을 구호미 못치 잇게 호리니 그디 권출호여 니 집으로 가서 안둔호고 그디 몸이 쇼성호물 기드려 경사로 오면 지금 요경이 용인호는 썩라 그디 님신힌기를 근심호리오 연이나 쯤호 일이 잇스니 신낭이 전도 직상의 지요 표치 위인이 그디 본 비라 녁미쇼저로 육되미 업스리니 약혼호미 엇더호보 (권 13).

위현은 화진이 머물 곳이 없음을 알고 우선 자기 집에 가서 있게 하는 한편 화진의 누이동생을 신낭에게 출가케 했다. 이후 화진은 위현을 돕는 원팔이 되었다.

왕정빈 석수신 등이 西蜀을 征伐치 못하고 能力있는 良將을 願했다. 이때 위현은 自願해서 그곳에 갔다. 그는 신, 화 두 사람을 불렀다. 이들이 敵將을 잡아왔을 때 위현은 그 겐 것을 끄르고 술을 주면서 그들을 타일렀다.

네 나라히 중국을 침범호고 남을 위호여 죽기를 감신힌은 엇지뇨…… 너 병 강낭족호니 너희 쇼혈을 분탕호 거시로디 네 임의 혈심으로 워웃츠니 네 도라가 스료와 요공을 ڑ호와 네 국왕이 친히 와 스죄하면 회군호려니와 불연죽 육석이 구분호리라 (권 14).

그는 이 싸움에서 勝利를 했고 京師에 돌아와서는 이부상서 겸 홍문관 태학사 무양후에 봉함을 받았다.

世宗皇帝가 崩하고 恭帝(宗訓)가 即位하자 위현은 물려서 華山으로 돌아왔다. 한 동안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진왕과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요공과 함께 起兵하여 天下를 定하고 南宋皇帝의 時代를 열었다.

숙정공위 쇼육이 부옥되로 더브러 천흥만학을 비르져 양후와 니 유 정 삼부인을 업시호고 깃브미 양양호나 공주의 덕음으로 일시도 부티 업지 못호지라 혼암호 공데돌 다티어 한응으로 부마돌 습으니 공주의 음형은 일구난설이나

무음이 고결한 것은 흠뻑타 무지지를 마치 아니 하고 도공이 반드시 나르히 오락지 아닐 바를 헤어려 벼슬을 바리고 필마단기로 화산의 니르러 서로 반기고 계공이 한가지로 국수를 탄복하더라 (권 20).

숙경공귀 큰 뜻을 니어 퍽후로 더브러 흉계를 발하여 짐독으로 부귀비를 죽이고 다시 흉계를 그어 공대를 죽이고 한옹이 스스로 서서 횡대로다 하며 공주는 덩궁냥낭이라 하고 부옥되는 첩여라 하고 퍽후로 황티후라 하여 일반 간신을 모화 국경을 난하니 충직지시 다 도라가고 문무신비 분항물 측량치 못하는 지라 도공이 초소를 알고 강키 분항물을 니기지 못하여 양후로 더브러 결결탄 돌하더니 히 밧고이미 양휘 부모귀 하덕하고 하늘 뜻을 밧드러 신 화 낭인을 더브러 도공을 보호하여 장들을 초모하여 군사를 크게 니르려 경성을 돛마듯 드러가 일반 간당을 쥘별하고 바로 쥘너를 충돌홀시 문위신비 간덕 한옹을 덜치하다가 도공과 위공의 괴병항를 당하여 슈모독도하여 합세하니……나라히 하로도 님군이 업지 못홀지라 뉴덕조를 곱힐시 의논이 분분하더니 모든 의논이 도공의게 도라오니 도공이 경황하여 구지 사양홀디 양휘 하늘 뜻을 밝혀 순순 천명항를 청홀디 도공이 여러번 사양하다가 마치 못하여 데위의 오르니 이 곳 남송황제라 (권 20).

곽소옥 부옥대 등이 亡命하여 절안에게 投降하고 宋나라에 作亂하여 왔을 때 위현이 出征을 自願, 그 亂을 不定했다.

절안이 창궐하는 역신의 도도미요 역신의 극악덕죄를 벌하오면 불충쇼신의 빌미오니 선도의 역적이 금일의 난을 짓소오니 이 곳 쇼신의 죄라 일지병을 빌니신즉 당당이 오랑캐를 치고 악역음녀의 머리를 던져의 현하리이다 (권 20)

운남이 남월, 교지 등과 合勢하여 起兵하였을 때 上은 크게 걱정을 하였다.

짐이 부지박덕으로 던하를 모립하미 국기 효창의 인심이 미정어논 거년의 북노를 又 평평하미 또 운남이 동국을 호시하여 괴병침범코주 하니 장조 엿지 씨 토평하리오당 (권 23).

이 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上은 親征을 決心했다.

경등이 일언을 받쳐 아니시고 국기 장초 위턱홀지라 경등을 엇지 여러 번 슈고롭게 하리오 짐이 장초 친정하여 승부들 결하리라 (권 23).

이 때 위현이 나서서 出征을 自願했다.

쇼신이 불스무용하와 토적하는 등임을 감히 당치 못하올시 유유하와 알의옵지 못하은 고로 성상의 시름을 난호지 못하와 성피 이의 밋츠시니 불츄무상하은 죄 만스무셔이로쇼이다 폐히 신의 죽을 죄를 사하신죽 휘하 말똥이 되어 역턴호 도적을 버히와 턴은을 만분지일이나 잡스지이다 (권 23).

그는 신, 화 두 장수를 앞세워 數個月 사이에 七戰七勝하였을 뿐 아니라 秋天같은 氣像과 秋日같은 惠和로 降服을 받고 班師했다.

그는 또 吳越 사이에 있는 큰 도적을 討伐하기 위해 南征大元師가 되어 出征했다. 그는 投降하는 사람에게는 糧米를 주어 故鄉으로 보냈다. 그 소문을 듣고 모두들 降服을 했다. 그는 德으로 教化하여 天子의 威德을 폈다.

以上的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위현은 門閥 좋은 家庭에서 태어나 浩然之氣가 있고 사람을 正確하게 볼 줄 아는 能力이 있을 뿐 아니라 人間美가 있고 忠誠心이 강한 人物임을 알겠다. 이렇듯 그는 男性社會에서 뿐만 아니라 女性들도 羨望해 마지 않음 存在라 하겠다.

4. 三 婦 人

위현은 아내가 세 사람이었다. 이, 유, 정 등 三小姐이다. 이들의 사람 됨됨을 살펴 보자.

〈이소저〉

소제 성형이 추상갓하여 비례부동하며 비례불정하오니 일즉 천첩의 회증의 서 것술 먹을 썬부터 힘살이 결노 니려시니 엇지 당부들 주턱하는 남시 이시 리잇고 (권 5).

이 말은 이소저의 유모가 하는 말이다. 이소저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이 있음을 알겠다.

현데 앓가 니가 녀주의 전후소를 다 드르시니 아니 이 녀지 서시의 용모와 조방의 외를 곱혔고 소왕의 총과 니루의 명을 두어 두힘이 괴복하니 니 뜻의는 현데 소왕으로 가인을 구하니 이만 못흔가 호노라 (권 5).

도공이 위헌에게 이소저와 結親하기를 勸하는 대목이다. 도공의 말을 미루어 본다면 이소저는 凡常한 女人은 아닌 것 같다.

니쇼저는 턱싱이 쾌락하여 명홍슈국이 금노를 썰치고 추공 계수나위 은상을 띄였는 듯 고상흔 널결과 정정흔 금회옥이 묘호를 사양하고 널결과결하여 텃항이 몽몽하고 셴염이 조악하여 덕귀 진하고 중귀 성하니 복중의 경운대지를 품어 무쌍 숙베라 (권 17).

이것은 위공이 세 며느리를 처음 보던 때의 인상이다. 위공은 처음부터 이소저의 사람 됨됨에 만족해 했다.

니슈의 위인이 고상츄뉴하여 신명해식이 안방정국기의 넉넉하니 어진 덕과 높은 의귀 고조 성녀의 조취를 니으니 소대의 일쌍가위라 엇지 복늬이 장원치 못흔가 녀흔리잇고 (권 17).

서암공이 父前에서 弟嫂인 이소저에 대해 한 말이다. 그도 역시 그녀를 아우의 좋은 배필이라고 만족하고 있다.

<유소저>

뉴쇼저는 용모 교교하고 성질이 화순하여 춘풍이 만물을 회싱하는 듯 시스와 음들을 경통하여 제조비가의 모를 거시 업스니 이는 한데의 궁인 진부인이란 지 공주의 총혜함을 사랑하여 부르치니 공귀 하나를 드러 익을 아더니 난을 만나 외구를 도조 산중의 오미 세상 눈의물 아지 못하고 두쇼제 교요흔가온디 학습하니 조득흔 거시 전의셔 비하니 녀주의 총명이 남도곤 느은은 경신이 온전하여 어즈럽지 아니미라 호물며 뉴쇼제 농동옥골노 턱싱녀질이 신선이니 타는 지되 엇지 범상하리오 호호 음들이 경통흔분 아니라 쇼티를 드러

먹음은 뜻을 알고 시 소리를 드러 길흉을 아는지라 비록 쇼저의 얼굴을 가진 이 잇시나 쇼저의 지도를 가진 지 업더라 (권 7).

〈정쇼저〉

정쇼저는 그 부친이 세상을 피하여 청산운월의 한가히 누어시니 슬하의 가
초하여 시름을 푸는 비 쇼저 하나히라 어려서부터 총명이 잇스니 부친이 사랑
하여 글을 가르치니 십세 전의 임의 문장이 되니 덩쳐서 본디 못넓은 글이 업
는지라 쇼용의 의술과 광박의 추슈하기를 다 가르치니 쇼계 비호미 신과하고
회득하미 공교하여 의심된 일이 잇스면 세슈분향하여 금돈을 더지며 능히 화
복을 서서 결단하니 한물며 용모의 단정하며 연미하미 분장의 공교로운 미화
와 육분의 아릿다운 국패라 뜻다른 주덕과 함열한 지질이 월전 상⁹와 천한의
지녀.갓하니 (권 7).

이러한 女人들을 조부인과 위공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자.

조부인이 저드라 몸을 두루쳐 피츠 비돌 파하미 명모를 경히 하여 솔피니
니쇼저의 능혼 격도와 맑은 금회 옥이 도호물 스양하고 금이 구드물 붓그릴지
라 추파쌍생의는 텃지 도화물 아오라 신명 상냥하여 텃향이 표표하고 계슈 한
9호 듯 뉴쇼저의 은순 화열하미 유란이 첫 봄을 맛났고 혜취 향거를 씹는 듯
정쇼저의 은순 주연하미 춘일이 최원의 바히고 요지의 봄이 도라일 듯하니
(권 19).

뉴 덩 낭쇼저의 윤열한 안모는 춘원의 만패 방창하고 노묘한 덕함이 번월
의 풍을 니어시니 영니하고 신명하미 만고 음울을 경통하고 은순주약하여 춘
공이 아연하디 혜풍이 한가호 듯 농슈쇼저의 팔치 넝넝하니 성전웅빙의 치운
이 어티였고 옥골선질이 표묘청낭하니 교험이 주약하여 티익부용이 도로를 멀
쳐 온주하미 난취 향거를 뽑고 안안하여 옥누의 춘향이 다스하니 비힘이 겸비
하여 진선진미하니 (권 17).

위공과 그 부인은 이 며느리들을 보고는 안목이 현황하고 心思가 활
연하였다. 이러한 자질을 타고난 女人들이 원화진인의 부름을 받아 그
곳에 갔다. 그는 楊玉眞의 형이라 했다. 마의녀에서 참화를 입을 때 우
연히 石室에 들어가 靈芝와 甘露를 마시고 俗念을 씻고 스승에게 道를
배워 200餘年이 되었다 했다. 그는 이쇼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빈되 아는 거시 업스나 쇼저의 상을 보니 괴운이 추상갓혀 구름을 능만하고 용피 뭉은 달이 천척창낭의 빛퀵 듯 괴상이 아오라흔 가을 하늘 갓흔니 텃지간 슈출흔 정막이라 총명흔 지뵈 사름 가운데 뵈어는되 즈중이 꺾겨흔고 슈한이 기지 못호도다 (권 8).

그 眞人은 石塔의 책 세 권을 이소저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그는 유소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기로운 풍치 봄 기운이 화창흔 듯흔며 아름다운 얼굴이 갓핀 연화 갓혀 연연이 유룡갓혀 편편흔 경홍 갓흔니 경국지식이라 쇼저를 디히뵈 귀비물 본 듯 호도다 그러나 슈한이 니쇼저와 갓혀와나 즈손은 만호니라(권 8).

그는 또 작은 책을 그녀에게 주었다. 또 그는 정소저에게

빈되 쇼저를 보니 괴상이 온치 만호미 미우 일만설봉의 동일지히 초호흔디 구슬꽃치 정영흔 듯흔여 분방 아담흔 격이 만복을 기리호 주는 그더보다 그디를 위호여 두 권 책을 슈느니 오늘 밤의 강론호여 평심 원을 일우라 (권 8).

하며 책 두 권을 주었다. 이들 책의 내용을 보면 이소저에게 준 책은 運籌帷幄의 決勝千里하는 知略과 日月星辰, 陰陽乾坤의 調和를 말한 것이요, 유소저에게 준 책은 律呂의 성음과 萬物의 소리를 빌어 萬國의 音律을 의논하는 것이요, 정소저에게 준 책은 文武 周公 鬼谷 손번 괘박 순풍 등의 미묘한 理를 해석하며 易理를 의논하고 화태 편작 등의 理를 논의하며 百草를 시험하는 醫家書였다.

이 외에도 眞人은 이소저에게 칼과 寶劍을 주었고 정소저에게는 丸藥 두개를 주었으며 後日을 위하여 그것들을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이 유정 등 三小姐가 正堂에서 잘 때 眞人이 現夢했다.

빈되 쇼저니를 니별흔 후 소호미 간절흔나 선범이 진히 다르니 즈로 오물 엇지 못호더니 쇼저니 큰 익이 오논지라 임시 처변호 도리로 디화를 버셔 구고려 호가 호오년 후면 익이 진호시리이다 (권 17).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금낭을 미리 전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빈피 거닐 거울과 칼을 보니든 금번 직익을 면할 분 아니라 타일 아름다운
 죽은 중 쓸 스롭이 잇시를 위히미러니 또한 미물이 잇스니 독히 흥흥 도적을
 처치하리니 벽상의 칼과 거리 두소서 (권 17).

이 일이 있는 후 三小姐 그 꿈을 기억하고 一次로 그녀들을 쫓하려는
 공주가 보낸 도적 호정을 방지했다.

一次 行計에 失敗한 公主는 금선불을 부려서 二次로 三小姐를 없애려
 했으나 三小姐는 신앙으로 하여금 조마경과 노끈으로 그를 처치케 할 뿐
 아니라 운향산에까지 가서 요도의 굴혈을 소탕케 하였다.

公主는 그래도 三小姐를 없애려 했다. 그녀는 흑농산 도적을 부려 正
 月 上元日을 擧事日로 정하고 三小姐를 총살케 했다. 그러나 三小姐는
 現夢 때의 啓示대로 움직여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처럼 꾸미고는 화초
 장 장사를 불러 그것을 사는 처하면서 그곳을 脫出했다.

이소저의 能力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信憑度는 높았다. 시어머니인
 설부인은 자신의 精神的 不安의 마디를 이소저에게 묻고 있다.

노쇠 근너 심동하여 일시도 편안치 못하니 현부는 신명훈 쇼견이 잇스니
 〇 히 능히 무양하여 부모를 속이지 아니라 (권 19).

이소저가 안서히 대답하기를

군주의 신상이 과연 유익하미 잇소오디 필경은 무방하오니 원컨디 성녀를
 허비치 마르쇼서 (권 19).

했지만 서부인은 더욱 놀라 그것이 무슨 厄인가를 묻는다. 이소저는

명미 신성 추점하오미 금일의 큰 익이 잇서 술히의 최슈하리라 하오니 무슈
 익이음은 모르오되 점스물 미드미로쇼이다 (권 19).

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문목성이 연하여 흑귀 미만하여더니 광칙 비로쇼 담당하고 자목교와 규목남
 이 좌우의 들너시니 군주의 敍쇼하플 알 거시오 몹은 빗치 서플 마르치니 효

신의 니발 흘찌라 거의 넘너흔 바의 어긋나미 업스니 비로쇼 방심홀찌라 당당이 존고고 고히여 성녀를 부르시게 홀 거시라 연이느 신기물 자랑홈 못하니 엇지 하리오(권 19).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서부인이 아들의 主屋을 물었을 때 이소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여러 별 스이의 빛치 몹고 큰 지 가부 유성 문곡성이오 각목교는 신앙을 옹호 별이오 규목냥은 화진을 지원 별이오니 두 별이 다 문곡성을 둘러 팡치 서로 가르치니 이러무로 군진 냥인을 거느려 오논가 하노이다 (권 19).

그들의 뛰어난 能力에 대한 인정은 그 幅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내력을 아는 서암공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스대의 비상호문 유시로 짐죽호옹거니와 니슈의 특이호미 무불통지호오니 천의 유의호시미 엇지 규합 부인의 여초호 해석이 잇스리잇가 (권).

또 위공도

여등의 현제호미 우호로 신기물 격감호여 오의 지양을 변호니 이는 다 현부 등의 공이라 노뵈 김히 치스호노라 (권).

하며 극구 칭찬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非常한 能力은 國事를 運營하는 데에도 보탬을 하고 있다.

관소옥, 부옥대가 결안에 항복한 뒤 邊方이 시끄럽게 되었다. 이때 위현이 出征했는데 그때 皇帝는 이소저에게 이렇게 물었다.

위경이 시의 험지의 출정호니 옹지디략으로 파적호문 넘너 업스나 경등의 우려호미 적지 아니리로다 연이나 경등의 슬기 예탁을 짐이 아는 비니 어느 제 승첩 회군호고 경등의 붉은 쇼건을 듯고조 호노라 (권 21).

이때 이소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신첩이 우미 혼연호오니 성교를 감당치 못호오나 성상 제턴 흥복을 힘닙스

와 파격하오른 넘베 업소오나 승첩 회군하오른 명년 스월이 되을 듯하오디 신
침이 혼용하오니 엇지 미리 괴약하미 마즈리잇가 (권 21).

皇帝가 그녀에게 勝捷回軍의 時期를 묻고 또 그 물음에 그녀는 서슴
치 않고 대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대답은 적중하고 있다. 그
녀의 能力은 世上이 알아주는 것이 되었다.

조승상에게 한 장 書封이 전해졌을 때 그는 예부의 연공과 병부의 양
공과 함께 皇帝의 櫺前에서 그것을 뜯었다. 그러나 그것은 글자가 피상
하여 구름의 形象과 새 발자국 같아서 아무도 해독할 사람이 없었다. 그
때 皇帝는 그 해독을 위현의 부인들에게 부탁하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외국 인물이 아국 인지를 시험하고 병을 드러 범코조 하미니 네 당 텃
보년간의 발히국 스신의 가져온 바와 방불하되 그씨는 니빅혹시 그 번서를 아
라보와 발히 군신의 답을 써르킨지라 목금 니 도경의 인지 업지 아니되 경동
삼인이 아지 못하니 기여는 더욱 니를 빈 업스니 엇지 하리오 위현이 만일 이
신즉 거의 알 비로디 먼니 잇스니 급히 가 불너와도 심여일니 을 질히 업술지
라 짐이 드르니 위경의 부인 니 뉴 등이 신괴흔 지되 잇셔 만국 음울과 쥬슈비
금의 소리를 알고 빅가서를 통치 못홀 거시 업다 하니 거의 알 듯하되 못고조
하나 만도턴관의 7득흔 도신을 두고 유리 부녀에게 부르미 극히 괴연하교 이
글 가져온 지 어디 숨어 드를진디 엇지 외국의 업슈이 녀이불 밧지 아니리오
경동이 초소를 번거히 구외에 너지 말고 이 글을 주너로서 황후 슈셔를 쥬어
비밀이 위현의 부인에게 못게 하리라 (권 23).

그때 위현이 그곳에 당도했다. 皇帝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해독했다. 그런데 위현이 급하게 上京케 한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다.

쥬 칠월의 밋쳐는 일일의 뉴부인이 시벽 장소를 일우고 취송자를 향코조 하
더니 남녀 하눌도노조 히학이 느라 취송자 반송의 안즈며 세번 올고 느라가니
부인이 경동하여 니부인고 이 뜻을 의논하여 별노 가정을 급히 화뢰로 보너니
가증이 알 니 업더라 (권 23).

위현이 갑작스레 京師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그의 三婦인이 상의하여 그
禍厄을 막으려고 非常 對策을 세운 때문이었다. 때문에 위현은 집에 돌

아와 유부인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인이 신이한 지음으로 금일 복으로 하여곰 불충한 죄 어드물 면케 하니 감
소할를 니키지 못하리로다 (권 23).

以上の 여러 가지 點으로 미루어 이 作品에 나타나고 있는 女主人公
들은 한결같이 非常한 能力을 가진 人物들이고 또 그들은 그 能力을 個
人의 問題 乃至는 國家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게 되면 女人들도 이미 有閑貞靜하고 窈窕한 것만을 美德으
로 삼던 지난날에서 進一步하여 行動的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印
象이 짙게 나타난다. 朝鮮朝 後期 社會의 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5. 孝

이 작품에서 연희숙은 위현에 버금가는 人物로 다음과 같이 말하여지
고 있다.

원너 더부인이 엄숙하미 조너를 재훈하미 구구히 조인하여 허물을 요디하미
업는 고로 그 조네 기기히 성회 출턴하여 덕힘이 완전하며 연공과 석부인이
대효로써 소친하미 증조의 양지와 조로의 부피물 효축하미 진효부의 괴특함과
왕시 처의 승순이 조축하미 니영빅의 간절한 성과 동중손의 소못흔 회며 조아
의 아비물 안음과 제영의 물입관비하기를 빌미 일가의 모혀시니 천고의 드문
닐이요 일세의 혼치 아닌 힘이라 여설중두하여 연상서의 가힘을 기록하노라
(권 25).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연상서와 그의 부인 석씨의 남다른 誠孝를
알겠다. 그러면 연희숙은 어떤 性格의 所有者인가를 살펴 보자.

네부상서 문하던 태혹스 연공의 명은 회숙이오 조는 공빅이니 위인이 경대
관인하고 활달디도하니 흥금이 뇌락하고 기질이 유연하여 광풍제월이 진의를
설치고 만니장턴의 겸운이 업는 듯 관홍흔 덕도와 호연흔 기질이 북히 남명의
호무이 안은 국냥이라 턴싱디효는 반의물 춤추고 작쥬로 회통하미 네가의 널
은 바 화괴 잇스든 반드시 육식을 니르미라 언전흔 체지와 당신으로 친축을 남

훈족 〇희와 충유의 체를 가져시며 풍신이 동탕하여 슈려훈 의표는 만해 방창하고 화열훈 안모와 효순훈 말슴이 친의물 위열하니 일세 밀위여 주리틀 골오리라 훈는지라 시고로 던지 배우하시고 빅뇌 다 탄복하니 위승상이 그 김훈 효와 늙흔 덕을 심려하여 경이 폐부의 들고 좃이 심혈의 아올나 판포의 지기틀 옛게 녀이느니라 그 어진 힘실과 통달훈 의논을 굳지 장려하고 일즉 슴을 향하여 박결훈 말슴을 받치 아니코 급거훈 노빛출 죄지 아니 하니 쇼인이 우러러 친이호미 늙중훈 덕망이 현불초 업시 도라가더라 (권 25).

그렇다면 그의 夫婦가 어떠한 行動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天生大孝라고 칭찬하고 있는가를 보자.

그가 12세 때의 일이다. 그의 外祖父 기승상이 慘禍를 만나게 되었다. 無男獨女인 그의 母親이 슬퍼하자 그는 그 어린 나이에도 不拘하고 京師에까지 가서 外祖父의 葬禮를 치르고 그 木主를 띄시고 돌아올 程度였다.

그가 先親의 喪을 당했을 때에는 그가 하도 서러워하니까 그 母親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笞杖을 칠 정도였다.

불초훈 주식이 다만 아비를 알고 어의 십삭 공은은 니져 죽고즈 호느냐 (권 25)

양공의 長子인 병윤은 外家에서 修學을 했다. 그곳을 자주 드나들던 景공이 그의 뛰어난을 보고는 請婚을 해왔다. 그래서 양공이 그것을 快許하였는데 공의 母親 기부인은 景공의 집이 빈한하다고 그것을 반대하였다. 양공은 이미 許한 것이니 어쩔 수 없겠다고 하자 그녀는 양공을 絶박하고 笞杖을 가하는 한편 석부인을 끌리고 태벌하기를 각별히 고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 夫婦는 그것에 조금도 不滿을 품거나 不平을 말하지 않고 있다.

시의 명윤공지 바야흐로 집의 도리완 지 슈일이라 부명으로 친우의 집의 서취를 엮고즈 〇더니 시동이 마도 와 공의 슈당하시물 고히는지라 공진 경황 망극하니 삼흔이 표탕하고 칠빅이 산난하여 거름이 운쇼의 썩이여 집의 니르니 디인은 바야흐로 의관을 다 벗고 등당을 입어 결박훈 거슬 푸지 아니하여 시니 뉴혈이 옷술 잠가거늘 모부인은 방시 죄톨 바다 〇치지 아나 혈육이 상

하여 흐르는 피 썩히 피어시니 공지 텅지 망극하고 가슴이 바아지니 머리를 계의 두다려 부모의 죄를 더할기름 비니 가월 갖흔 눈섭의 경황흔 근심이 들넛고 뉴성 갖흔 봉목의 망극흔 눈물이 헝뉴하니 적혈이 옥 갖흔 토출 덩허는지라 (권 25).

기부인이 공자의 소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용서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에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화평하고 효순하였다.

드디어 조와 부를 스하니 공이 의관을 갖초와 올라 되실시 기운이 화평하고 스기 효순하며 부인이 또 안서이 스죄하고 좌우의 되시미 (권 25).

그 뿐 아니라 연공은 父母의 수장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네 아비 불초 불민하여 주의를 빗드지 못호오니 장칙을 받조오미 당연하고 여피 너의 실인이라 조당의 슬허니 그른 일을 다스리미 맛당장거늘 네 엇지 슬픈 식을 조견의 비읍노노 (권 25).

이렇듯 영공 부부의 효성이 지극함은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이러듯흔 업칙이 무상호되 석부인이 저기도 요동이 업고 공조의 부뵈 혼간 갖치 경성되고 두려호니 친척과 님니 칭예호고 비복이 감탄호는지라 세동황대 그집 가힘을 드르시고 기복이 너이스 공을 시강호스 네부상셔를 호이시니 공이 모친을 되시고 조녀를 거느려 경소의 와 총우를 맞고 거호여더니 (권 25).

연공의 長女 화옥이 芳年 13 세에 옥모가 화태요 난심혜질이였다. 형부상서 왕정빈이 연공 부부의 大孝를 감복하여 次子로써 求婚을 했다. 연공은 親友之間이라 거절치도 못하고, 때마침 國喪으로 달포 母前에 뵈지 못하다가 왕공이 주는 信物을 가지고 가서 사정이야기를 했다. 그때 기부인은

네 노모를 의심하여 혼인을 정호를 취롬치 아니호고 신물을 바다 도라와 노모를 뵈니 노피 부절업시 스라 너의 피로이 너이를 바드랴 (권 25).

하고는 大聲痛哭을 했다. 연공은 사죄를 청하였으나 四寸杖을 치고는 그 罪를 용서하였다. 그때 연공 부부의 몸가짐은 태연했다.

모전의 이욕이 되서 배허 히노흔시를 기드려 스거 화열하고 말슴이 순후하니 왕공이 공을 기다리지 아니코 몬져 니려 도라가 연부 경상을 전설하니 일세 유명하여 모로리 업스디 연공을 기탄하여 기부인 포려할들 감히 번거히 니르지 못하더라 (권 25).

다음해 왕공자가 연소저를 취하니 소저의 요조함과 왕생의 호상함이 짐짓 쌍이라 모두들 치하하고 기부인도 환열하였다. 그때 연공의 從弟 치숙이 지난 일을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일이 벌여졌다.

초흔의 형당이 숙모고 밋쳐 고치 못하시미 부득이혼 일을 술피지 아니스 파히 노흔시더니 금일 신당의 아를다오를 보스 혼연하시니 형당은 그 몸의 장흔이 밋쳐 업지 아나시디 즐거오를 니기지 못하시니 진실노 디순 이후의 일인 이를 알니로다 (권 25).

이 말이 기부인에게 전설이 되자 그녀는 당장 연공을 잡아 내리고 糞杖을 췌다.

네 불효하여 어미게 죄 님으를 한하여 아으로 더부러 설수를 닐너시무로 질의 명으를 디하여 노모를 시비하니 명이 체육하여 원언이 여츄타 하니 이는 다 너의 불효한 죄라 네 감히 벌을 면하라 (권 25).

이 光景을 본 연치숙이 極口 변명을 하였다.

초흔을 형당 말슴으로 알외미 아니라 저 즘음거 쇼질이 왔다가 보은 고로 기숙이 처음으로 경소의 와시니 잠간 스고돌 니르옵고 속도 성덕이 죄될 다스리신 후 즘이 지극하시를 감탄하고 형당의 성효 디순 이후 혼 슴이시물 니르온지라 명운은 진실노 아지 못혼 일이오니 복원 숙모는 쇼질을 다스리쇼셔 (권 25).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이 사건으로 온 집안이 笞杖을 받았다.

그러나 연공 집안에서는 그러한 笞杖에는 관계없이 언제나 承順孝奉하였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그의 大孝를 감복할 뿐이었다.

시의 석부인이 식부로 더부러 飢餓를 그르고 장복을 버서 디뢰하고 화취 호르는 눈물이 옥면을 덮혀 머리털 두다려 디하여 맛기를 비는지라 부인이 비로 쇼 치기를 굿쳐 다시 명을 드르라 하고 노복을 물니친 후 초환으로 하여곰 석부인과 경소저를 슈십티를 더울시……무죄한 식부 손부가지 중치하고 바야흐로 노기 풀나이니……석부인이 혼연이 조부와 손인 부부들 다 오르라 하니 공의 부조 부부 다 일시의 울나 피실시……외당의 만좌 제빈이 초경을 다 듯고 도라가 각각 던설하니 세인이 연공의 충탄 인망을 사랑하소 문하던 틱혹스네 부상셔를 하시고 충우하시미 지극하시더라 (권 25).

거부인의 回甲宴이 있을 때였다. 연공의 孝心에 감복한 사람들은 그 집안을 구경코자 모여 들었다.

명년 하 오월의 밋쳐는 거부인 회갑이니 연공이 디연을 진설하고 친척 인친을 다 청하여 경소를 표홍시……석의 너의 빈적이 구름 못듯 하여시니 구타여 연혼 디시 아니니 구경홀 비 아니로더 거부인의 엄너함미 경향의 유명하고 연공과 석부인의 특출한 성회 일홈 느니 한번 구경코자 닷도와 니르니 (권 25).

그때 그녀는 조보의 며느리 최씨의 奸言에 빠져 화주를 조보의 孫婦로 許婚코자 했다. 그러나 연공은 조보가 德이 없음을 아는 고로 그 혼사를 滿足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조피 맛당하시나 너의 아직 유하의 잇스오니 이제 가취불 니르올 비 아니니라 동용이 의논함미 맛당홀 듯함이다 (권 26).

이렇듯 연공이 조심스레 의견을 말하자 거부인이 발연 노하였다.

네 감히 이 쟁의 혼인도 노모의 명을 거스리고 네 임의로 방조히 한다 (권 26).

연공이 시간을 두고 조용히 定하리라 再三 조심스러운 의견을 폈다. 그러나 거부인은 滿足치 못했다.

불효의 불효 무상함과 조교를 밟조오니 죄담만시로쇼이다 조위 일월 성덕을 우리와 하회를 알의옵느니 내의 힘혀 용촉지 아니호오니 저와 조혼 비필을 엇 굽고져 하옵느니라 조주의 위인을 보지 못호였스오니 동용의 결코조 혼 비로 쇼이다 (권 26).

그녀는 그 대답이 모호함을大怒하여 매를 가려 매우 치게 했다.

부인이 동시 그 대답이 모호함을 대노하여 노조를 호령하여 큰 띠를 끌리어 마이 치게 하니 상제 황황 축척하여 공순히 마졸시 오조 명운이 의관을 벗고 것히 꾸러 디하여 맛기물 인걸하고 경쇼져 환피물 그르코 머리를 두다리나 부인이 우귀와 호승이 바야호로 눌합거늘 조의 혼조의 엄함을 제빈의게 조랑코 조 호고 취후 노귀 빅장이나 이러느니 엇지 제손의 망극함을 도라보리오 소리를 고찰함미 노직 실혼하여 진척하여 치니 혼 띠의 가죽이 터지고 붉은 피 쇼스니 (권 26).

위공이 진왕의 성취를 걱정했다. 연희숙의 女兒가 賢淑함을 듣고 그 사실을 皇帝에게 아꼈다. 皇帝는 그 일을 위하여 揀擇승을 내렸다. 연공은 進退兩難이었다. 그러나 그는 慈前에서 그 사실을 實吐하였다. 이때 妃부인은 발연히 大怒하였다.

이는 비 스스로 황상을 부촉하여 간선의 명을 청하여 노모를 협제코져 함이라 엇지 거죽 근심하여 어미를 속이느뇨 (권 28).

그후로 그녀는 음식을 전폐하고 누워버리고 말았다. 연공이 거듭 進飯하시기를 請하였으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너 조쇼로 쫓의 거스리를 본즉 음식지 못호느니 조녀를 극진이 사랑하는 경의를 두어시되 미안함미 분이 풀니고야 비로쇼 심니 혼연호니 이제 쥬오를 혼인코조 함미 심히 니 뜻과 다르물 불열호더니 의외에 황명이 느리시니 저의 용화로써 엇지 간택의 면호리오 분이하어 식음의 뜻이 업도다 (권 28).

그는 그 간택에 응하지 않겠다고 굳이 約束을 했다.

석지라 연공이여 성효의 지극호므로 귀화 명월 조혼 여오를 조져 옥슈 신월

또 혼 남조를 물니치고 모부인 성심이 혼열호스를 엇잡고즈 턴명을 역하여 죄책이 나리를 짐작호되 감심하여 주위를 위월치 아니호니 신명이 엇지 감복지 아니 호리오 (권 28).

그러나 기부인은 빙낭의 참언을 듣고 미처 曲直과 虛實을 헤지 아니 하고 크게 노하여 연공을 잡아들이라 하고는 크게 꾸짖었다.

네 작일의 날을 더하여 간선을 청호미 업술와 호더니 인지 황명을 빙조하여 어미를 속이라 호거늘 너 씨 그런가 호였더니 네불초 간악하여 7마니 칠패를 밧고 길거를 틱하여 두고 오히려 노모의 불열호를 썬려 턴조의 세물 썬고 어미를 첩제하여 특별이 혼닌호려 호물 니 임의 아라시니 너희 불초 난눈을 엇지 숨기리오 너 부결업시 사라 불초 락조의 업슈히 녀이물 바드미 통히호지 라케히 죽으리니 조후는 네 임의로 호라 (권 29).

그녀는 칼을 빼었다. 千萬意外에 母親의 拔劍함을 본 연공은 極口 사죄하였다.

주위 불초호를 통히호신죽 업히 장척을 유스 그르물 곳치게 호시리니 조마 엇더 망극호 거도물 호시느니잇고(권 29).

주위 인조 성명호시니 불초호 호히 정스를 슬피스 과거를 거두시고 다만 불초를 경척호스 죄를 다스리시면 힘이 죽는 날이라도 스는 히 조호리로쇼이다 불초이 임의 망극호 죄명을 밧조와 만번 죽업죽 호오니 계하의 죽으물 바라노이다 엇지 조마 잡은 거술 노하 틱틱의 과거를 보리잇고 복원 주위는 칼홀 호호를 유시고 형장을 더으시를 바라노이다(권 29).

그녀의 화가 좀 풀리려는데 中使가 왔다. 연공은 下獄되었다.

턴뇌 진척호스 상서노야물 금의옥의 느리오라 호시고 동시 황척을 밧드려 와시니 고히노이다 회라 군신의 명분이 지엄호른 임의 출츄의 복히 빛켜여시 니 삼척 호동도 님군 두려호 줄은 알 거시여늘 연회숙이 감히 턴위를 만모호여 두려 표명을 거스려 불경 불순호니 이는 진왕이 황고와 모후를 다 여회와 고흐호를 업슈이 녀이미라 석일의논 신지 아니니 업더니 이제 보거물 흥모조

치 한는도다 집이 옛날은 군신의 대의 잇고 당금은 군신의 뇌 골육의 경을 곁하여 고향을 독하물 위하여 비뺌을 굴리고져 한겨늘 너 연희속이 감히 방조 무엄하여 황명을 초기치네이고 경이 뇌도한을 어지리 못하여 가부의 그른 거슬 기유치 아니코 동심하여 너의를 숨기고 텃명을 연하여 거스리니 그 죄 당당히 놀이 잇스니경은 지실하라 (권 29).

이것을 들은 기부인은 백배 고두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였다.

쇼조 회속이 황명을 밋드지 아니른 노첩의 죄라 만세낭낭 업피 지츠하시니 당당이 부월지규를 기다리나이다 손베 화주를 타쳐의 유의호른 성상이 만민의 부피시니 소경을 통촉하시물 보르느이다 감히 텃명을 항거하여 순슈치 못하리잇가 식부는 더욱 불명 과격호므로 일언을 닷토지 못하옵는지라 엇지 저의 죄리잇고 도도히 노첩의 죽엄죽헌 죄라 상궁은 이 뜻을 텃안의 상달호오셔 늙은 목숨이 부월을 밋게 하시고 원통한 주식과 머느리물 스하시물 보르느이다 (권 29).

그후 그녀는 화주를 내보내고 애원하듯 말했다.

너 의 평일 효의로써 만세 성모거 이결하여 아비로 슬와 너라 (권 29).

연공이 兒子로 집에 돌아와 문 밖에서 脫冠解帶하고 不孝를 請罪하자 기부인은 아들을 안고 失聲痛哭했다. 연공이 안색을 和하게 하고 母親을 慰勞하자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冠을 씌우며 말했다.

노의 광피 또한하여 널노 하여곰 어려서부터 뜻을 꺾지 못하여 조로 중히 쳐 너의 몸을 상히오고 금번 노모의 불통 무상한 죄를 모도 씨워 두고 누우고 설워 스스로 죽고즈 하다가 요힘 다시 너 의를 불가 하여 잔명을 니었더니 의 능히 심환하니 이제 죽다 무슨 설우미 잇스리오 낭낭 업피 현부의게 느리스 여쳐어츠 하시니 노모의 과악으로 오의를 죽게 혼죽 너 줌 엇지 살니오 슈의를 꺾중의 보니여 만세 낭낭거 이결하라 하였더니 슈이 능히 계영의 고스를 효측하여 낭낭 성심을 감동호은 고로 오늘날 모지 산 듯츠로 다시 보니 이는 다 오의와 현부의 지효덕으로 명 의와 화주 등의 쫓여난 회 잇는지라 일노도츠 부절업스니 귀운을 듯초고 잠된 녀너를 꺾쳐 평안이 효봉을 바드리

라 너를 잡혀 보려고 곳곳이 누워보거늘 한물며 턱노를 맞노오른 빙냥의 요악
 함므로 너의 멋진 과거 받접한물 인하여 오오로 하여곰 망극하여 죽고조 하고
 두 손으로 등상하니 일노써 등스를 공환흔지라 설우미 한되어 간장이 촌촌이
 쓴는 듯하니 빙세하여 초성의 과거를 아니하리라 (권 30).

以上을 살피전데 연공과 그 부인 석씨의 孝誠은 至極했다. 뿐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孝心에도 놀라운 때가 있다. 조선조 후기의 사
 회가 여러면에서 변질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士大夫 階層의 사람들에게
 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이 孝라고 하겠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위씨 家門의 사람들이 孝行이 뛰어나지 않은 것
 은 아니나, 연씨 家門의 事件들을 通하여 그 孝心을 한층 돋우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作品을 通해서 그 孝를 한층 강하게 말
 하고 있는 것이다.

6. 結

위에서 살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1. 위현과 같은 男性을 당시 사람들은 동경하고 있다. 좋은 家庭에서
 태어나 兄弟보다 뛰어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濟世安民하는 度量을 지
 니고 있다. 그는 나라에 위태로움이 생기면 언제나 自願해서 出征했고
 또 나아가서는 언제나 敵을 무찌르고 그 싸움을 勝利로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가려서 쓰고 또 部下를 잘 부릴 줄 아는 사람
 이다. 그는 卑賤한 처지에 있는 신양이나 화진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가진 能力을 十分 發揮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또 人間味가 넘치는 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싸움터에서 마주 싸우던 사람이라도 그가 진정으
 로 누우치면 그 목숨을 살릴 뿐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나아가 몇몇하
 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그의 德은 天下에 퍼졌고, 그러한 아들
 을 가진 老父母는 神仙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2. 賢淑한 女人들도 매우 行動的이다. 위현의 三婦人인 이씨, 유씨
 그리고 정씨는 모두 亂을 피해 사는 女人들이었다. 이들은 元化진인에

게서 敎示를 받아 運壽帷幄의 決勝千里하는 知略과 日月星辰 陰陽乾坤의 調和를 이룰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律呂의 성음과 萬物의 소리를 빌어 人間事를 解決하는 能力, 그리고 易理를 通하여 禍福을 가늠하고 百草를 시험하여 萬病을 다스리는 能力까지도 가지게 된다.

조선조 사회가 바라던 女人像이란 窈窕하고 貞淑하며 有關貞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종전의 그러한 일면을 지키면서도 이들의 活動範圍가 넓어지고 있다. 집안 안의 어려움을 解決하는데도 나서야 했고 國家大事를 처결하는데도 그들의 힘이 作用하게 되었고 또 그 社會가 그러한 것들을 빌리려 했다.

이러한 事實들은 當時 社會가 女性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女性들도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一面이라 하겠다. 이것은 사회의 한 큰 變化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孝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主人公들의 孝에 대한 關心度는 높다. 無關心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正常的인 生活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孝에 대한 關心은 크다. 그중에서도 여기 내세운 연희숙과 그의 家庭의 경우란 두드러진 것이라 하겠다.

연희숙의 孝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쁘게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것이긴 하나, 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도록 努力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의 孝란 正名을 바탕으로 한 孝인 것이다. 笞杖을 받고 남들 앞에서 또는 下吏들 앞에서 杖責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른 곳에까지 이끄는 것이 그의 孝의 始末인 것이다.

以上の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조선조 후기라는 사회가 小說을 禁限하고 있기는 했으나 擴散해 마지 않는 그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그러한 小說에 아예 朝鮮朝 倫理의 大綱인 「忠孝」라는 指導理念을 浮刻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